

일본 국토교통성 건설부문 주요 보도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부문의 주요 내용만 요약함.(25.12.01~25.12.31)

□ 나라현 새로운 마을 만들기 펀드 설립 [12/1]

- 일본 국토교통성은 민영 도시개발 추진기구(MINTO 기구)를 통해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 '관리형 마을만들기 펀드'를 조성해 민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함. 특정 지역의 빈집·빈점포 리노베이션 등으로 에어리어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과제를 해결하며, 펀드 출자·사채 취득으로 연쇄적 사업을 촉진함. , '관리형 마을만들기 펀드'는 2017년 4월에 창설되었음
- 주요 요건은 펀드 총액의 2/3까지 MINTO 출자(최대 20년 존속, LLP 형태), 사업자 지원 한도 총사업비 2/3(출자 시 자본 2/3 중 적은 금액)임. 2024년 12월 기준 전국 36건 이상 실적이 있음
- 국토교통성은 12월 1일 민영 도시개발 추진기구(MINTO 기구)를 통해 '나라현 新 마을만들기 펀드' 설립을 발표함. 야마토코오리야마시(大和郡山市) 중심상권의 빈집·빈점포 리노베이션을 지원해 마을 활성화를 돕는 사업임. 지역금융인 나라신용금고와 협력으로 출범한 이 펀드는 민간 사업에 출자·대출을 통해 지역 자금 순환을 촉진함
- 야마토코오리야마시 중심가는 인구 감소로 빈집·빈점포가 늘어 상권 기능이 약화됐으나, 코오리야마성 중심의 성 아래 거리와 역전 상점가의 활기가 강점임. 펀드는 이러한 역사 자원을 활용, 빈집을 숙박·외식·교류·이벤트·체험 시설·대여 사무실로 탈바꿈시키는 민간 프로젝트를 후원함. '관리형 마을만들기 펀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정 지역을 면적으로 관리하며 연쇄적 리노베이션을 유도함. 장기적으로 마을 가치 상승과 활기 회복을 목표로 하며, 국가 지원으로 위험을 줄이고 지역 창의를 자극하는 구조임
- 유사 사례로 나가노현 나가노시에서는 200년 된 전통 건물을 호텔·레스토랑으로, 야마구치현 나토시(長門市)에서는 폐공중목욕탕을 음식 병설 입욕 시설로 재탄생시킴. 야마토코오리야마시에서도 역사 자원을 살려 새로운 관광·교류 거점 탄생에 기대가 모아짐

□ 국토교통성, 도로면 태양광발전 기술 공모...도로 휴게소 보행로 실증 착수 [12/1]

- 일본 국토교통성은 12월 1일 '실증용 도로면 태양광발전 기술' 공모를 시작했음.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도로 공간 재생에너지 창출을 추진하며, 도의역 등 보행자 공간에 태양광 패널을 포장재로 설치하는 기술을 모집함. 참가신청은 12월 22일, 기술자료는 내년 1월 27일까지 제출받음
- 과거 차도·주차장 실증에서 차량 하중으로 인한 균열 발생 등 문제가 드러나, 이번엔 경하중 보행로 중심으로 전환됨. 도의역 휴게시설 등 실사용 환경에서 내구성·안전성·발전능력·유지관리성 등을 검증하며, 발전 전기를 활용한 사회실험도 병행함. 공모는 기업·제품 인증이 아닌 성능 확인 목적임
- 요구사항은 도로기능 유지, 교통안전, 내재해성, 경제성 등 포괄적. 프랑스 와트웨이처럼 다층 구조 패널로 가정 1채 전력 공급 가능한 기술을 기대함. 동아도로공업 등 국내 기업도 2021년부터 주차장 실증 진행 중이며, 미국 미주리주 솔라로드 프로젝트처럼 눈 녹임·표지판 연동 사례도 참고됨

- 이번 실증은 국토기술연구센터가 주관하며, 가속화된 도로 탈탄소화 정책(25년 10월 개정 도로법 시행)과 연계됨. 전국 122만km 도로에 도입 목표로, 재해시 전력 공급 등 다용도 활용 전망임

□ 2025년도 외국인재와 만드는 건설 미래상 수상 대상 결정 [12/2]

- 일본 국토교통성은 12월 2일 '외국인재와 함께 만드는 건설미래상'(국토교통대신 표창) 2025년도 수상자를 발표함. 건설 분야 특정기술 외국인 및 수용기업의 노력 인정으로, '우수 외국인 건설기능자상' 6건, '외국인재 육성상' 6건, '미래대처상' 5건 등 총 17건 선정하였으며, 12월 22일 표창식 개최 예정임
- 이 상은 2023년 창설 이후 3회째로, 건설인력 부족 속 외국인 특정기술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올해 △ 우수 외국인 건설기능자상(응모수 : 45건) 은 중국·베트남·미얀마 출신 등 기능·일본어 습득 우수자 6명, △ 외국인재 육성상(응모수 : 24건)은 기업의 체계적 훈련·처우 개선 노력을 기울인 6개 회사가 선정됨. △ 미래대처상(응모수 : 22건)은 지역사회 공생·사업전개 등 우수 사례로, 건설현장 지도역할 모색자를 강조하며, 5개 회사가 선정됨
- 일본 건설업계는 고령화·인력난 심화 문제로 인해 외국인재 10만 명 육박하고 있음. 이러한 표창을 통해 모범사례 확산되고, 고용환경 개선·다문화 공생 모델 기대됨

□ 스톡 효과 분석에 관한 지자체 직원 등을 비롯한 인프라 관리 담당자용 연수 신청 접수 개시 [12/3]

- 국토교통성은 2025년 12월 3일, 인프라의 스톡 효과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등 인프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연수 참가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이번 연수는 산학관 연계 플랫폼인 SPIVE(산학관 연계추진 인프라 전략추진 플랫폼)의 주요 사업으로, 사회자본 정비가 지역에 미치는 장기·간접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수는 2026년 1월에 수도권·근기(간사이)·규슈 세 지역에서 각각 1회씩, 총 3회 개최됨. 도쿄 회차는 1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중앙합동청사 제2호관 회의실에서, 후쿠오카 회차는 1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하카타역 인근 회의실에서, 오사카 회차는 1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신오사카 인근 민간빌딩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각 회차당 모집 인원은 약 20명임. 대상은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관리 담당자이며, 참가비는 무료임
- 프로그램은 '플로우(Flow) 효과와 스톡 효과의 차이', '스톡 효과 분석 방법', '스톡 효과 최대화 검토 방법'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결합한 대화형 연수로 구성됨. 국토교통성은 인프라 투자 효과를 사후에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지역 인프라 전략·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EBPM(근거 기반 정책결정) 강화를 위해, 지가 데이터와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톡 효과 분석 가이드선도 병행 보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 건설기능자를 소중히 하는 기업의 자주선언제도가 시작 [12/3]

- 국토교통성은 2025년 12월 3일, 「건설기능자를 소중히 하는 기업의 자주선언제도」를 창설하고 12월 12일부터 선언 기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건설기능자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자가 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엔드유저에 이르는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아 수주 기회와 인재 확보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참여를 원하는 건설 관련 기업은 12월 12일 이후 전용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자주 선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 목록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공개될 예정임.
- 선언 기업은 적절한 노무비의 확보·임금의 확실한 지급, 건설 캐리어업 시스템(CCUS) 활용, 하도급을 포함한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구체적 실천 항목을 스스로 약속하는 구조임
- 국토교통성은 선언 기업이 자사의 웹사이트나 홍보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심볼마크와 애칭도 함께 공개했음. 심볼마크와 애칭은 각각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활용 시에는 별도로 제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함. 향후 국토교통성은 자주 선언을 한 기업에 대해 경영사항심사(경심)에서의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해, “기능자를 소중히 하는 기업”이 눈에 보이게 평가받는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임

□ 국토교통성 발주 업무 위탁에서 슬라이드 제도(업무 슬라이드) 시행 도입에 대해 [12/3]

- 국토교통성은 2025년 12월 3일, 최근 공기 평준화 추진과 설계기술자 단가 상승 등을 반영해 건설 컨설턴트 업무 등에서 가격 전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2026 회계연도 이후 신규 계약부터 「슬라이드 제도(업무 슬라이드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함
- 이 제도는 계약 후 발생하는 임금·자재비 등의 가격 변동분을 소정의 산정식으로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메커니즘으로, 건설 컨설턴트·측량·지질·토목설계·건축설계·용지보상 등 직할 업무 전 분야에 적용됨
- 이번 시범 도입에서는 임금 변동 시 착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업무(예: 현장 점검·조사 등 잔업무량 산정이 용이한 분야)부터 우선 적용하며, 계약서(입찰설명서·특기사항서)에 슬라이드 적용을 명시하고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시행함. 국토교통성은 슬라이드 금액 산정을 위한 '잔업무량 산정 방법'을 시범적으로 설정해 적정성을 확보하고, 추후 시범 결과를 검증한 뒤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이 조치는 건설 컨설턴트 관련 3개 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금자 공치 국토교통상관이 시범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음. 향후 설계 등 진행 상황 확인이 어려운 업무에도 부분 공정 분할 등의 방법을 검토해 확대 적용을 추진하며,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적정 가격 전가를 촉진함

□ 방재·감재 대책 등 강화에 45억 엔 배분 [12/4]

- 국토교통성은 2025년 12월 4일, 자연재해의 극심화·빈발화에 대응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감재 대책 강화사업추진비」 2025 회계연도 제3회 배분으로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29건의 공공사업(하천·사방·도로·해상교통·임야)에 총 45억 2,500만 엔(국비)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 이 예산은 재해 피해 지역의 재재해 방지 대책, 사회적 영향이 큰 교통 인프라 정비, 돌발 사태에 대한 긴급 사전 방재 대책 등에 활용되며, 최근 호우 재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동적 배분 체계의 일환임
- 배분 사업은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뉨. 첫째, 피해 지역 재재해 방지 대책으로 홍수·침수 대책(하천·도로) 12건에 23억 2,800만 엔, 절벽 붕괴·법면 붕괴 대책(도로·해상교통) 3건에 4억 4,500만 엔, 낙뢰 대책(해상교통) 4건에 4억 700만 엔이 배정되었음. 둘째, 교통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교통 안전 대책(도로) 1건에 1,500만 엔, 셋째, 돌발 사태 긴급 대책 필요 지역 사전 방재 대책으로 홍수·침수 대책(하천·사방) 3건에 7억 5,100만 엔, 절벽 붕괴·법면 붕괴 대책(도로·임야) 6건에 5억 7,900만 엔이 지원됨

□ **건설공사 수주동태 조사보고(2025년 10월분) [12/10]**

- 2025년 10월 수주총액은 10조 4,646억 엔이며, 전년동월대비 3.3% 감소하여,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반전함. 원도급 수주액은 6조 9,802억 엔(전년동월대비 1.4% 감소)으로 13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하도급 수주액은 3조 4,844억 엔(전년동월대비 6.7% 감소)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함
- 원도급 수주액(6조 9,802억 엔)의 발주자 별 통계는 공공기관으로부터가 2조 2,336억 엔(전년동월대비 19.7% 증가, 2개월 연속 증가)이며, 민간으로부터가 4조 7,465억 엔(전년동월대비 9.0% 감소, 13개월만의 감소)임
- 원도급 수주액(6조 9,802억 엔)의 공사 종별 통계는 토목공사가 1조 9,179억 엔(전년동월대비 11.2%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이며, 건축공사(건축설비공사 포함)는 4조 2,242억 엔(전년동월대비 4.8% 감소, 3개월 만의 감소)임. 기계장치공사는 8,381억 엔(전년동월대비 8.9% 감소, 6개월 연속 증가)임

□ **2025년도 지역만들기 표창 국토교통대신상 표창식 개최 [12/10]**

- 국토교통성은 2025년 12월 10일, 창의적·자주적인 「지역 만들기」 활동의 우수 사례를 표창하는 「지역만들기 표창」 2025년도 국토교통대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관계 단체의 공동 주최·후원을 통해 1984년부터 이어져 온 상으로, 제42회를 맞은 올해는 11월 20일에 수상 단체가 결정되었음
- 올해 전국에서 모집된 32건의 사례 가운데 「국토교통대신상」에는 홋카이도 아바시리시 「MOT레일 구락부」,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시오지리Lab」, 에히메현 이마바리시 「세토우치 미나토마르쉐실행위원회」 등 3개 단체가 선정되었음. 세 단체는 지역 자원의 재발견, 관계 인구 확대, 지역 교통·상권 재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며 “새 시대에 지역력을 잇는 국토”라는 목표를 체현한 사례로 평가되었음
- 홋카이도 아바시리시의 'MOT 레일 클럽'은 지역 산림 환경 보전·재생과 교류 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 활동으로 수상했음. 패션 부지를 활용한 레일 이벤트와 워크숍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참여자와의 연결을 강화했음.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며 제3차 국토형성 계획의 '지속 가능한 생활권 재구축'에 기여했음
- 나가노현 시오지리시의 '시오지리 Lab'은 지역 과제 해결형 랩으로 다양한 테마의 토론을 촉진했음. 와인용 포도 재배 프로젝트 등 20개 이상 테마에서 100명 이상의 관계 인구를 창출하고, 2지역 거주자도 증가시켰음. 민간 기업·취미 모임과의 연계가 특징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과제 해결 체계를 구축했음
-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의 '세토우치 미나토마르쉐 집행위원회'는 시마나미 해도 개통 후 항만 쇠퇴 대책으로 음식을 축으로 지역 자원을 재정의 했음. 이벤트 개최로 교류권을 창출하고, 오토캠핑장·외식점 개업을 유발했다. 새로운 민간 투자를 불러일으키며 2지역 거주 모델로 지역 기여가 평가받았음
- 시상식에서는 국토교통대신상이 이들 3단체에 수여되며, 그 외에도 일본정책투자은행상, 전국 지역 만들기 추진협의회상, 전국 2개 지역거주촉진관민연계포럼상 등 다양한 상이 함께 수여될 예정임

□ **필리핀에서 「도로 건설·O&M에 관한 비즈니스 워크숍(제4회)」 개최 [12/12]**

- 일본 국토교통성이 필리핀과의 도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국토교통성은 12월 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와 함께 '도로 건설·O&M(운영·유지관리)

비즈니스 워크숍' 제4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2022년 제1회 도로 터널 건설·O&M 워크숍을 시작으로 양국이 도로·터널 분야에서 기술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어온 정례 플랫폼임

- 이번 제4회에서는 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도로 건설, 고속도로 운영, 유지관리(O&M) 전반에 관한 최신 기술과 사업 사례를 소개했음. 일본 측에서는 고속도로·도로 터널의 설계·시공, 장기 유지관리 기술, 자산관리, 안전관리, 재난 대응 등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했음. 필리핀 측은 마르코스 정권 아래 추진 중인 대규모 도로·교통 인프라 계획과 민관협력(PPP) 사업 수요, O&M 인력·기술 수요 등을 설명하며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음
- 워크숍 후에는 양국 민간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교류회가 열려, 일본의 고속도로 회사와 필리핀 도로·터널 발주기관, 건설사, 운영사 등이 구체 사업을 논의했음. 이 자리에서 참가 기업들은 도로·터널 O&M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장비·자재 공급, 교통·톨링 시스템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음. 행사에는 일본 측 국토교통성 도로국 간부와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 사다인 상급차관 등 양국 고위 관계자도 참석해, 인프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음

□ 2024년도 전국 옥상·벽면녹화 시공실적 조사 결과 [12/12]

- 국토교통성이 2024년 한 해 동안 국립경기장 두 개 규모에 해당하는 새로운 옥상녹화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12월 12일 발표된 '전국 옥상·벽면녹화 시공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새로 시공된 옥상녹화 면적은 약 14.5 헥타르로 국립경기장 약 2개 분(1개 약 6.96 헥타르)에 해당하며, 벽면녹화는 약 4.6 헥타르였음
- 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25년간 누적된 옥상녹화 면적은 약 633 헥타르, 벽면녹화는 약 131 헥타르에 달했음. 다만 해당 조사는 최대 3년 전까지 소급해 응답을 받는 방식이어서, 2023·2024년 데이터는 잠정치로 향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음
- 국토교통성은 옥상·벽면녹화가 도시 열섬현상 완화, 빗물 유출 저감, 경관 개선, 생물다양성 보전, 주민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함. 특히 최근 기업 사무소 건물의 옥상녹화에서 단일 수종 중심이 아닌 '복합 식재' 방식의 면적이 단일 식재보다 크게 늘어난 점을 특징으로 꼽았음
- 복합 식재는 중·고목, 대나무류, 여러 종류의 초화·지피식물을 조합해 입체적인 녹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여름철 건물 온도 저감과 그늘 공간 확대에 효과가 큼. 이와 같은 옥상녹화는 곤충·조류 서식지를 제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업무 공간과 인접한 녹지 환경을 통해 오피스 작업자의 웰빙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됨
- 국토교통성은 관련 보도자료와 협력 기업 리스트를 함께 공개하며, 지자체·민간의 녹화 정책 수립과 사업 기획에 폭넓게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음. 또한 각 지자체의 의무화·보조금 제도, 민간의 기술 개발과 연계해 옥상·벽면녹화를 '녹 풍부한 도시 만들기'의 핵심 수단으로 더욱 확산하겠다는 방침임

□ 공항 제한 구역 내에서 반송용 차량의 자율 운전 레벨4가 실용화 [12/15]

- 국토교통성이 도쿄 국제공항(하네다)과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공항 제한구역 내 자율주행 레벨 4 트랙터의 실용화를 공식 발표했음. 국토교통성 항공국은 그동안 공항 그라운드 핸들링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수하물·화물·여객 운송을 상정한 자율주행 실증을 민간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그 성과가 실제 운용 단계에 들어간 것임

- 레벨4는 특정 구역·조건 하에서 운전자 탑승 없이 완전 무인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공항 내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도 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조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이번에 실용화된 것은 항공기 수하물·화물 컨테이너를 견인하는 '토잉 트랙터'로, 기존에는 운전자가 상시 탑승해 레벨3 수준에서 감시·개입하던 운용 방식에서 한 단계 진화했음
- 하네다공항에서는 주로 화물 지역 간 컨테이너 운송, 나리타공항에서는 여객터미널과 위성동 사이 수하물 운송에 투입되어, 반복·장거리 동선을 중심으로 무인 운행을 담당하게 됨
- 관광수요 회복과 항공편 확대 속에서 그라운드 핸들링 인력 부족은 심각한 과제로, 국토교통성과 항공사·공항사는 자율주행 도입을 통해 인력 효율화와 안전성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특히 야간·악천후, 피크 시간대 반복 운행 구간에서 무인 토잉 트랙터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작업자의 육체적 부담 경감과 장시간 노동 시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